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8. 2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- 「트럼프」美 대통령, 大選 전까지 아프간 주둔 美軍 감축 지시
 - 7.29 BBC는 「트럼프」美 대통령이 아프간 주둔 병력을 大選('20.11월) 전까지 감축하도록 「마이크 폼페이오」 국무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보도
 - * 현재 아프간에는 14,000여명의 美軍이 주둔 중

유럽

- 「Five Eyes」, 암호화 메신저 '백도어' 허용 논의
 - 7.29 美·英·캐나다·호주·뉴질랜드 첩보동맹인 'Five Eyes'는 테러·범죄 등에 대처하기 위해 페이스북 등 암호화 메신저에 접근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'백도어'* 허용에 대해 논의
 - * 비인증 사용자가 앱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몰래 설치하는 통신연결기능

중 동

- 아프간, 大選 선거전 개시 이후 테러위협 증가
 - 7.29 NYT는 아프간 大選(9.28) 선거운동이 지난 28일 시작되었으나, 유권자들은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이 교착 중인 가운데 테러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테러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투표를 해야 할지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
 - * 7.28 「암롤라 살레」 부통령 후보 사무실에 무장괴한의 폭탄테러로 20여명 사망·50여명 부상, 탈레반이나 ISIS가 배후일 가능성 농후

○ 터키, 시리아 內 독자 안전지대 설치방안 제의

- 7.30 터키 국방장관은 美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“시리아 안전지대 구축 관련, 美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독자적으로 안전지대를 설치 하겠다”고 강조하며, △안전지대 폭 30~40Km, △쿠르드인민수비대 (YPG) 철수 및 무기회수, △YPG 설치 터널·은신처·장비 등의 양국 협력통제를 제안

○ 터키, 이라크 內 쿠르드지역 대테러 군사작전 지속 방침

- 7.31 터키 국가안전보장회의(NSC)는 이라크 북부 깐딜 산악지대에서 ‘쿠르드 노동자당(PKK)’을 소탕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발톱작전*을 모든 테러리스트를 소탕할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발표
- * 7.28 터키군은 지난 3개월간 PKK 조직원 255명을 사살·생포했다고 발표

아 · 태평양

○ 인도, 카슈미르 접경 분쟁지역에 軍병력 1만명 급파

- 7.29 현지언론은 인도 정보당국이 파키스탄 접경 분쟁지역인 인도령 잠무-카슈미르에서 대규모 테러 정보를 입수해 100개 중대 1만명 규모의 軍병력을 급파했다고 보도

○ 호주, 보트피플 차별 ‘시한부 비자’ 제도 항의 시위

- 7.29 AP통신은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호주에 입국한 수백 명의 난민들이 고국을 방문할 경우 난민 자격을 상실 하거나 만료된 비자의 갱신을 일부 거부하는 ‘시한부 비자’ 제도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
- * 보트피플에게는 3년 또는 5년 기한의 임시 비자를 발급하나, 배가 아닌 다른 교통편을 이용한 난민들에게는 영구적인 보호비자 발급

스페인 부르고스·마요르카 차량 폭탄 테러

- '09.7.29~30 스페인 북부 부르고스·마요르카에서 민정경찰대 대상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
 - 7.29 부르고스 소재 민정경찰대 건물 주변에서 차량이 폭발(부상 64명)
 - 다음날 휴양지 마요르카섬 민정경찰대 건물 외곽에서 2차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(사망 2명, 60명 이상 부상)
- 스페인 정부는 同 테러가 민정경찰대를 노렸다는 점에서 바스크 분리주의 무장단체 ETA의 소행으로 판단
 - * ETA가 창단 50주년('09.7.31)을 맞아 조직의 건재를 과시하려한 것으로 추정
- ETA는 스페인 정부와 '06년 영구휴전협정을 맺었지만 같은해 12월 마드리드 공항 주차장에서 폭탄 테러를 자행하여(사망 2명),
 - 스페인 정부가 ETA 소탕을 선언한 이후 세력이 위축된 상태에서 기습테러를 벌인 것으로 평가

테러 상식

< 바스크 조국해방(ETA, Euskadi Ta Askatasuna) >

- (목표) 스페인 바스크지역 해방 및 사회주의 국가 건설(1959년 결성)
 - * 미국('97.10), 영국('01.3), 캐나다('03.4)에서 테러단체 지정
- (연계세력) 프랑스 바스크지역 무장단체 'Gazteriak'
- (핵심인물) 미켈 카레라 사로베(군사지도자, '11년 프랑스에서 체포 수감 중)
레사카(군사책임자, '12.10 파리에서 체포 수감 중)
- (활동지역) 스페인 바스크주, 프랑스 남서부
- (활동수법) 스페인 정부요인 총격·차량폭탄 및 다중이용시설 대상 폭탄테러
- (참고사항) · 바스크지역 기업들로부터 혁명세를 징수, 테러자금으로 활용
 - '04년 이후 스페인 및 주변국에서 약 902명의 직원들 체포
 - '11.10 무장투쟁 종단을 선언한 이후 테러활동 별무
 - * 아직까지 조직해체나 무기 반납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음